



# 제7기 정책혁신 소위원회 활동보고서

담당부서 : 경영전략본부 정책혁신부

Tel : 061)900-2143 | 집필자 : 제7기 정책혁신 소위원회

I. 개요

II. 운영경과

III. 주요 활동

IV. 성과 및 한계

V. 예술지원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정책 제안

---

# 목 차

---

<b>I. 개요</b> .....	1
1. 활동배경 및 목적 .....	1
2. 구성 및 임기 .....	3
<b>II. 운영 경과 및 주요 논의 내용</b> .....	4
1. 활동 주제별 경과 .....	4
2. 정책혁신소위 회차별 논의 내용 .....	4
<b>III. 주요 활동내용</b> .....	8
1. 예술지원 패러다임 전환과제 도출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	8
1) 개요 .....	8
2) 워킹그룹별 활동내용 .....	8
(1) 예술의 현재성 .....	8
(2) 기술변화에 따른 예술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	10
(3)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정책 연속 워크숍 .....	15
2. 예술 현장과의 소통 .....	20
(1)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참여 .....	20
(2) ARKO 정책혁신소위원회 정책제안 포럼 운영 .....	22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안에 대한 논의 .....	25
<b>IV. 성과 및 한계</b> .....	26
1. 활동 성과 .....	26
2. 한계 및 과제 .....	28
<b>V. 예술지원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정책제안</b> .....	28
1. 정책제안 .....	28
2. 정책제안 .....	29

---

# 1. 개요

---

## 1. 활동배경 및 목적

### 1) 활동계획의 배경

- 사회적 요구와 현장 참여를 토대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아르코) 7기 위원회 출범
- 아르코 7기 위원회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문화예술계 미투 등 변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 현장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출범하였음
- 아르코 7기 위원회는 예술 현장과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국가 주도의 진흥에서 예술가의 협치와 지원으로’, ‘계량화된 기능에서 내재화된 가치로’, ‘새로운 예술지원체계의 목표 및 방향 설정’ 등을 주요 방향으로 인식
- 아르코 7기 위원회는 기존의 개별화된 장르별 소위원회 구조를 탈피하여 위원회 내부의 상호협력, 예술 현장의 장르 융합과 통섭, 사회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등을 위해 소위원회 구조와 운영 방식 설정 : 상설 소위원회(현장소통소위원회, 정책혁신소위원회, 성평등예술지원소위원회)와 의제별(비상설) TF로 구조화
- 아르코 7기 위원회의 정책혁신소위원회는 상설 소위원회로서 아르코의 정책 의제 발굴과 계획 수립, 정책 현안에 대한 검토와 대응, 문화예술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정책 수립 및 공론화, 타 소위원회 및 TF에 대한 정책 협력 등을 위해 구성되었음
  
- 코로나 팬데믹 등 사회 변동에 대응하는 새로운 예술지원정책의 필요성
- 아르코 7기 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기후위기, 기술변동, 고령사회, 지역분권 등 급격한 사회변동에 적극적이며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예술정책 환경 속에서 출범
- 아르코 7기 위원회가 코로나 19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에 출범했다는 점에서, 정책혁신소위원회 활동은 재난사회 속에서 예술지원정책의 현안과 미래에 대응해야 한다는 과제를 내재한 채 시작됨
- 정책혁신소위원회는 기존의 현안 대응이나 지원정책 개선을 포함하여 사회 변동과 위기에 본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예술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존재하였음
  
- 예술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정책 활동 필요
- 예술 생태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정책 불신을 해소하고 예술 현장과의 신뢰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예술지원정책 패러다임과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기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문화예술계 미투 등 예술 정책에 대한 예술 현장의 불신과 비판 속에서 예술 지원 정책과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음
- 정책의 의제뿐만이 아니라 정책을 고민하고 수립하고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 예술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이 혁신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시대
- 정책혁신소위원회는 아르코 사무처, 현장소통소위원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예술 현장에 친화적인 예술지원 정책 활동을 모색

## 2) 제7기 정책혁신소위원회 활동의 목표와 방향

- 아르고 7기 위원회의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정책 기반 마련 및 전문성 강화
  - 아르고 7기 위원회 활동 전반에 걸쳐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활동 체계 마련
  - 아르고 전원 위원회, 사무처 전반, 소위원회와 TF 사이의 정책적 연계와 협력 활동 활성화
  - 정책혁신소위원회와 정책혁신부의 협력 활동을 통해 아르고 정책환경의 중장기적인 개선과 전문성 강화 추진
  
- 예술 현장 친화적인 아르고 정책 환경 조성
  - 예술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정책혁신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아르고 전체적으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예술 현장과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와 공론장 활성화
  - 정책혁신소위원회와 타 소위원회·TF 사이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정책 활동의 현장성 강화
  
- 예술지원정책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활동
  - 아르고 관련 정책 현안에 대한 검토와 대응 방향 제안
  - 코로나 팬데믹을 비롯하여 예술가의 생존과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현안 대응 추진
  - 예술지원정책 현안에 대한 본질적이고 중장기적 차원의 정책 대안 모색
  
- 사회변동과 예술 생태계의 변화를 고려한 예술지원정책 의제 발굴 및 정책 과제 제시
  - 사회변동(기후위기, 기술변동, 고령사회 등) 속에서 미진한 예술지원정책의 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책 대안 모색
  - 새로운 예술지원정책의 담론과 정책과제들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확대
  - 예술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예술지원정책 주체 발굴 및 네트워킹 강화
  
- 아르고의 구조적이고 축적된 과제들에 대한 정책적 접근과 대안 모색
  - 아르고 중장기 계획들(아르고 비전 2030, 아르고 23대 혁신의제 등)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통해 점검과 이행 모색
  - 아르고 예술지원정책 주요 과제들(정책 자율성 확보, 자원 안정화, 심의와 평가제도, 지원사업구조 등)에 대한 정책 연구와 대안 제시

## 2. 정책혁신소위원회 구성 및 임기

### ■ 제7기 정책혁신소위원회 구성의 원칙 및 과정

- (구성원칙) 7기 정책혁신소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실질적인 상설 정책협의체의 역할을 할 수 전문성과 적극성을 고려
  - 정책혁신소위원회 역할에 따라 소위원회의 아젠다에 적합한 예술 현장 주체 및 전문가 초빙
  - 정책연구와 작업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본인 참여 의사 확인 후 사무처와 위원들이 추천하여 구성
  - 예술지원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의 개선을 논의해야 하기에, 아코믹스 신TF와 아코 비전2030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포함
  - 예술 현장과 예술지원정책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외부 위원 추천 시 젠더와 연령을 함께 고려하여 선정
- (구성과정) 정책혁신소위원회 준비 워크숍에서 정책소위 참여를 원하는 내부 위원(위원회 위원)을 선정, 이후 위원회 위원 및 사무처 추천을 받아 외부위원을 구성
  - (내부위원) 초기 이원재, 박경주, 정유란, 유은선 위원이 참여, 이후 2021.5월 신입위원 위촉에 따라 정종열, 장인주 위원이 추가 합류
  - (외부위원) 분야, 전문성, 젠더,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와 사무처가 외부 위원 풀을 구성하고, 이후 본인 참여 의사를 확인하여 외부 위원을 선정

### ■ 제7기 정책혁신소위원회 구성(가나다 순)

이름(젠더, 생년)	현직(2021년 현재)	비고
박경주(여, 196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사회적기업 다문화극단 (주)샐러드 대표	위원회 위원
성연주(여, 1986)	사회학 박사, 문화정책 연구자	외부위원
성지수(여, 1991)	컬렉티브 댕굴 대표, 화학작용 페스티벌 예술감독	외부위원
양혜원(여, 197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연구실장	외부위원
유은선(여, 196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무용원 강사	위원회 위원
이원재(남, 197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사)시민자치문화센터 대표	위원회 위원 정책혁신소위원회 위원장
장인주(여, 196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무용평론가	위원회 위원
정유란(여, 197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문화아이콘 대표	위원회 위원
정운희(여, 1977)	미술작가, 비평그룹 시각 대표	외부위원
정종열(남, 196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위원회 위원
최도인(남, 1970)	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	외부위원

### ■ 제7기 정책혁신소위원회 운영기간 : 2020년 8월 ~ 2022년 6월

## II. 정책혁신 소위원회 활동방향 및 운영내용

### 1. 정책혁신 소위원회 주요 활동방향

- 제7기 정책혁신소위원회는 2020년 6월 준비회의, 2020년 8월 제1차 정기회의를 시작으로, 총 29회의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음
- 제7기 정책혁신소위원회는 예술정책의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예술지원체계를 진단하고 새로운 방향과 정책을 제안하는 ‘일하는 소위원회’ 역할을 수행.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활동을 추진
  - 첫째, 예술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필요한 주요 아젠다를 도출하고 아젠다별 현황진단 및 새로운 예술지원정책의 대안을 제시
  - 둘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책현안 및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처가 필요로 하는 사안을 정책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자문을 수행
  - 셋째, 예술지원의 새로운 이슈를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예술현장-소위원회-위원회(사무처)의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예술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논의를 외부(다양한 주체: 예술계, 정부 등)로 확산

[표 1-1] 제7기 정책혁신소위원회 운영과정

일시	활동방향	주요 추진 내용	비고
2020년	예술생태계 변화 현안검토 및 의제발굴	· 예술지원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의제 도출 · 예술지원정책 현안에 대한 검토 및 대안 모색 · 제1회 아르고 대토론회 정책소위원회 세션구성운영	
2021년	의제별 워킹그룹 구성운영	· 의제별 워킹그룹 구성 : 예술의 현재성, 예술기술, 기후위기 예술정책 · 워킹그룹별 활동 : 연구, 워크숍, 공론화 등 · 예술위원회 정책현안 검토 · 제2회 아르고 대토론회 워킹그룹별 세션구성운영	워킹그룹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
2022년	제7기 정책혁신소위원회 정책제안 도출	· 예술지원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정책제안 도출 · 정책소위 활동의 내외부 공유 · 제7기 정책소위 성과 및 한계 검토	제7기 정책소위 활동보고서

### 2. 정책혁신 소위원회 회차별 논의 내용

- 제7기 정책혁신소위원회는 2020년 6월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2022년 6월 결과보고회까지 2년간 약 30회의 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구체적 운영경과는 [표2-2]와 같음

[표 2-2] 정책혁신소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및 주요내용

일시	회의명	주요 논의내용	참여
2020.6.5	준비회의	○정책혁신소위원회 역할 및 방향 사전논의	조기숙, 이희경, 이원재 박경주, 정유란
2020.7.3	준비 워크숍	○예술정책 환경 및 기관현안 검토	조기숙, 이희경, 이원재,

일시	회의명	주요 논의내용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혁신소위원회 역할과 방향 설정: 예술정책의 패러다임 전환</li> <li>○정책혁신소위원회 위원 구성방안 논의 : 내부 4인</li> </ul>	박경주, 정유란, 홍태림
2020.8.20	1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임 민간위원 위촉 : 외부 5인</li> <li>○기관소위원회 운영규정 및 현황</li> <li>○아르코혁신TF 혁신의제 추진경과 공유</li> <li>○정책혁신소위원회 운영방향 및 의제선정방안 논의</li> </ul>	이원재(위원장), 박경주, 정유란, 유은선, 성연주, 양혜원, 정윤희, 최도인
2020.9.3	2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기 정책혁신소위원회 제안의제 발굴</li> <li>○주요의제 관련 현안공유</li> <li>○제안의제 선정 및 추진방안 계획 논의</li> </ul>	이원재, 박경주, 정유란, 유은선, 성연주, 성지수, 양혜원, 정윤희, 최도인
2020.9.17	3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기 정책혁신소위원회 추진의제 우선순위 및 추진방안 논의</li> <li>○21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계획(안) 공유</li> </ul>	이원재, 박경주, 정유란, 유은선, 성연주, 성지수, 양혜원, 정윤희, 최도인
2020.10.8	4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대응 TF 활동경과 보고에 따른 협력 워크숍 진행 논의</li> <li>○사업혁신 TF 활동경과 보고 및 논의</li> </ul>	이원재, 정유란, 유은선, 성연주, 성지수, 양혜원, 정윤희
2020.10.22	5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혁신소위원회코로나19대응 TF 협력 워크숍: 코로나19 예술포럼 발제자료 보고 및 정책 제안 논의</li> </ul>	이원재, 박경주, 정유란, 유은선, 성연주, 양혜원, 최도인
2020.11.5	6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0 아르코 정책컨퍼런스 추진계획 보고 및 논의</li> <li>○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책혁신 방안 논의</li> </ul>	이원재, 정유란, 유은선, 성연주, 성지수, 정윤희, 최도인
2020.11.19	7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0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세션구성 및 운영방안</li> <li>○아르코 정책연구 스크리닝 및 향후 방안</li> <li>○문예기금 예산 분석방안 논의</li> </ul>	이원재, 유은선, 성연주, 성지수, 최도인
2020.12.3	8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0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세션 내용 사전 논의: 예술지원 패러다임 전환의 조건들에 대한 7가지 키워드</li> </ul>	이원재, 유은선, 성연주, 성지수, 양혜원, 정윤희, 최도인
2020.12.	1회 아르코 대토론회 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변화 그리고 예술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li> <li>- 헛도는 헛치, 걸도는 소동: 예술정책네트워크는 혁신되었나?</li> <li>- 더 늦기 전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예술정책</li> <li>- 지역과 청년이 부상하는 예술정책의 미래</li> <li>-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작업에 대한 지원방식의 다변화</li> <li>- 예술 지원 패러다임 전환의 조건들</li> </ul>	이원재, 박경주, 정유란, 유은선, 성연주, 성지수, 양혜원, 정윤희, 최도인
2021.1.14	9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환경의 변화: 문화예술진흥법 정비를 위한 사전연구 공유</li> <li>○전략사업부 2021년 아트앤티크 융합사업 계획 논의</li> </ul>	이원재, 박경주, 유은선, 정유란, 성연주, 양혜원, 정윤희, 최도인
2021.1.28	10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회 정책연구 운영방향 공유</li> <li>○2021년 아트앤티크 융합지원사업 워크숍 결과 공유</li> <li>○2020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후속조치 논의</li> </ul>	이원재, 박경주, 유은선, 정유란, 성연주, 성지수, 정윤희, 최도인
2021.2.25	11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1년 정책혁신 소위원회 운영목표와 로드맵 설정</li> <li>○2021년 주요 논의의제(주제) 도출</li> </ul>	이원재, 박경주, 유은선, 정유란, 성연주, 성지수, 양혜원, 정윤희, 최도인
2021.3.18	12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제별 활동계획(안) 발표 및 논의</li> <li>- 예술의 현재성</li> <li>- 기술변동과 예술지원정책</li> <li>-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정책</li> </ul>	이원재, 박경주, 유은선, 정유란, 성연주, 성지수, 양혜원, 최도인

일시	회의명	주요 논의내용	참여
2021.4.15	13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워킹그룹별 과제 예산집행 가이드 안내</li> <li>○주요 의제별 추진방법 및 계획 논의</li> </ul>	이원재, 유은선, 정유란, 성연주, 성지수, 양혜원, 정윤희, 최도인
2021.5.13	14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임 위원 합류 : 장인주, 정종열</li> <li>○위원회 진행 현안 공유</li> <li>○주요 의제별 진행현황 공유</li> </ul>	이원재, 박경주, 유은선, 정유란, 정종열, 성지수, 정윤희, 최도인
2021.6.10	15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회 진행 현안 공유</li> <li>○주요 의제별 진행현황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의 현재성: 설문문항 구성 및 FGI 추진</li> <li>- 기술변동과 예술지원정책 연구용역 추진</li> <li>- 기후위기 예술정책: 1회 워크숍 추진 및 향후계획 공유</li> </ul> </li> </ul>	이원재, 박경주, 유은선, 정유란, 장인주, 정종열, 성지수, 양혜원, 정윤희, 최도인
2021.7.8.	16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회 진행 현안 공유</li> <li>○주요 의제별 진행현황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의 현재성: FGI 결과공유 및 향후계획 논의</li> <li>- 기술변동과 예술지원정책 연구업체 선정 및 내용 공유</li> <li>- 기후위기 예술정책: 2차 워크숍 추진 및 향후계획 공유</li> </ul> </li> <li>○정책혁신 소위원회 운영방안 개선 논의</li> </ul>	이원재, 박경주, 유은선, 정유란, 장인주, 정종열, 성연주, 양혜원, 최도인
2021.8.5.	17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의제별 진행현황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의 현재성: 설문문항 개발</li> <li>- 기술변동과 예술지원정책: 연구용역 업체와 워크숍(착수보고)</li> <li>- 기후위기 예술정책: 3차 워크숍 추진 및 향후계획 공유</li> </ul> </li> <li>○2021년 하반기 주요 논의주제 선정</li> </ul>	이원재, 유은선, 장인주, 정종열, 성연주, 양혜원, 정윤희, 최도인
2021.9.2.	18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2년 정시공모사업 추진 관련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사업 기본방침, 자문심의제도 개선 등</li> </ul> </li> </ul>	이원재, 박경주, 유은선, 장인주, 정종열, 성지수, 성연주, 양혜원, 정윤희, 최도인
2021.9.16	19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혁신소위원회 정책활동 현황과 과제 발표 및 논의</li> <li>○2021년 아르크 대토론회 개최계획 논의</li> </ul>	이원재, 박경주, 유은선, 정유란, 장인주, 정종열, 양혜원, 정윤희, 최도인
2021.10.14.	20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변동과 예술지원정책 중간보고 및 논의</li> <li>○3개 워킹그룹 연구 진행현황 공유</li> <li>○2021년 아르크 대토론회 세션 구성 및 운영방안 논의</li> </ul>	이원재, 유은선, 정유란, 장인주, 정종열, 성지수, 성연주, 정윤희, 최도인
2021.10.29.	21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의제도 개선방안 논의</li> <li>○(전략개발팀) 정책과제(안) 검토</li> </ul>	이원재, 유은선, 장인주, 정종열, 성연주, 정윤희
2021.11.11.	22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개 워킹그룹 진행상황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변화와 예술지원정책, 기후위기와 예술정책 공론화 추진</li> <li>- 예술의 현재성: 설문조사 현황 공유</li> </ul> </li> <li>○심의제도 개선방안 논의</li> </ul>	이원재, 유은선, 정유란, 장인주, 정종열, 성지수, 양혜원, 정윤희
2021.11.25	23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변화에 따른 예술지원정책 공론화 참여 및 결과 공유</li> <li>○심의제도 개선방안 논의</li> <li>○아르크 대토론회 참여확대 및 거버닝 방안 논의</li> </ul>	이원재, 유은선, 정유란, 장인주, 성연주, 성지수, 양혜원, 정윤희, 최도인
2021.12.	2회 아르크 대토론회 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션2)예술과 기술 융합 창작활동 현황과 향후 지원정책 방향</li> <li>○(세션4) 예술가의 눈으로 바라본, 예술의 존재방식에 대한 현재와 미래 : &lt;예술의 현재성&gt; 연구결과를 중심으로</li> <li>○(세션7)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을 말하다</li> </ul>	이원재, 박경주, 유은선, 장인주, 정종열, 성지수, 성연주, 양혜원, 정윤희, 최도인

일시	회의명	주요 논의내용	참여
2021.12.16	24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1 아르코 대토론회 종료 보고</li> <li>○워킹그룹 결과보고서 작성현황 공유</li> <li>○간급제안 안건 논의</li> </ul>	이원재, 유은선, 정유란, 장인주, 정종열, 성연주, 성지수, 양혜원, 정윤희, 최도인
2022.1.20	25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2년 활동 목표 및 주요내용 논의</li> <li>○워킹그룹별 정책제안서 작성현황 공유</li> </ul>	이원재, 유은선, 정유란, 장인주, 정종열, 성연주, 성지수, 양혜원, 정윤희, 최도인
2022.2.17	26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워킹그룹별 정책제안 발표 및 논의</li> </ul>	이원재, 유은선, 정유란, 장인주, 정종열, 성연주, 성지수, 양혜원, 정윤희, 최도인
2022.3.17	27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워킹그룹별 정책제안(안) 논의</li> <li>○정책제안 공론화 방안 논의</li> </ul>	이원재, 박경주, 유은선, 정유란, 정종열, 성연주, 성지수, 양혜원, 최도인
2022.4.13.	정책제안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지원사업의 패러다임 전환 제안(성연주)</li> <li>○기술변화에 따른 예술지원정책 제안(양혜원)</li> <li>○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정책 제안(성지수)</li> </ul>	이원재, 유은선, 정유란, 장인주, 정종열, 성연주, 성지수, 양혜원, 정윤희, 최도인
2022.5.20	28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7기 정책혁신소위원회 백서 제작방안 및 계획</li> <li>○제7기 정책혁신소위원회 성과와 한계 논의</li> </ul>	이원재, 유은선, 정유란, 장인주, 정종열, 성연주, 성지수, 양혜원, 정윤희, 최도인
2022.6.22	29차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7기 정책혁신소위원회 활동보고서 검토</li> </ul>	이원재, 유은선, 정유란, 장인주, 정종열, 성연주, 성지수, 양혜원, 정윤희, 최도인

### Ⅲ. 주요 활동내용

## 1. 예술지원 패러다임 전환과제 도출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 1) 개요

#### ■ 추진배경 및 목적

- 정책혁신소위원회는 정책현안에 논의 및 자체 정책 생산을 위한 소위원회로, 제7기 정책소위는 운영 결과물로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함. 예술지원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큰 주제 아래 ①예술의 현재성, ②기후위기 시대 예술, ③기술과 예술의 주제를 선정하였고, 소위원회 위원+외부 워킹그룹 결합 등을 통해 연구를 추진
- 결과물로 예술지원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도출하고, 사회와 정부에 정책을 제안

#### ■ 워킹그룹 구성현황 및 추진방법

[표 2-1] 정책혁신소위원회 워킹그룹 구성 현황

워킹그룹 주제	담당위원	주요 추진내용	추진방법
예술의 현재성	최도인 성연주 정윤희	· 예술의 현재성 개념화 · 예술의 현재성 설문조사 문항개발, 진행 및 분석 · <아르코 대토론회> 예술의 현재성 세션 운영	· 연구용역 및 자체연구
기술변화에 따른 예술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유은선 박경주 양혜원	· 연구기획 및 자문 · 제안사업 도출 및 검토 · <아르코 대토론회> 예술기술 세션 운영	· 연구용역 및 연구진 회의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정책	이원재 정유란 성지수	· 기후위기 예술정책 연속워크숍 · 문헌연구(동향 및 사례검토) · 공론화 <기후위기 시대 예술을 말한다> · <아르코 대토론회> 기후위기 세션 운영	· 내부 연속 워크숍 및 공론화

## 2) 워킹그룹별 활동 현황

### (1) 예술의 현재성

#### ■ 활동의 배경 및 목적

- ‘예술의 현재성’ 워킹그룹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예술이 정의되고, 예술인이 직업적 정체성을 획득하는 방식, 그리고 예술가들의 작업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축된 ‘예술의 현재성’을 탐구
- 1973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장르 중심 예술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술의 현재성’의 개념화와 구조화를 제안
- 예술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예술인 인식조사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래 예술이 나아갈 방향과 예술지원정책이 나아갈 지점을 제안함. 구체적 활동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예술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예술인, 예술작업, 예술과 사회, 예술지원사업의 측면에서 ‘예술의 현재성’ 개념화 및 구조화
  - 둘째, ‘예술의 현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조사 문항 개발 및 진행
  - 셋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술의 현재성’에 대한 예술인의 인식 분석 및 관련 정책 제안

■ 워킹그룹 구성 및 역할

- 정책혁신소위원회 민간위원 3인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조사업체를 공개 선정

구분		이름(소속)	역할
내부 워킹 그룹	정책혁신소위원회 위원	성연주(문화사회학 연구자)	연구 기획, 설문조사 문항 개발, FGI 진행, 보고서 집필
		정윤희(미술작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연구 기획, 설문조사 문항 개발, FGI 진행, 보고서 집필
		최도인(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	연구 기획, 설문조사 문항 개발, FGI 진행, 보고서 집필
외부 조사업체		티브릿지코퍼레이션	설문조사 진행 및 기초분석 보고서 집필

■ 워킹그룹 활동의 과정과 방법

- 예술의 현재성 워킹그룹은 예술현장의 목소리와 활동을 최대한 반영한 설문조사가 될 수 있도록 다음의 과정을 통해 설문조사 개발
  - ① 국내외 예술인 대상 인식조사 및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예술의 현재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논의 및 개발
  - ② 설문조사 문항 개발 과정에서 2회의 예술인 대상 사전 FGI 추진하여 문항 수정 및 보완
    - 1차: 고안나(태평소 연주자 및 연구자), 김장연호(네마프 집행위원장), 신민준(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 임재성(첼리스트)
    - 2차: 고대웅(작가), 김기일(극단 엘리펀트룸 연출), 남하나(시각예술 분야 창작자,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스태프)
  - ③ 설문조사 종료 후 1회의 예술인 대상 사후 FGI 추진하여 조사 결과 및 내용 다차원적으로 이해
    - 1차: 김기일(극단 엘리펀트룸 연출), 남하나(시각예술 분야 창작자,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스태프), 봄로야(작가, 예술청 운영위원)
  - ④ 설문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예술의 현재성 연구>,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인 <20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소위원회 이슈리포트 - 예술의 현재성 연구> 발간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공유

■ 연구의 주요내용

① 배경 및 과정

- 정책혁신소위 내 과제 설정 및 목표 도출(2020년 하반기) : 예술현장의 주요 변화를 연구 및 분석하여, 아르코의 예술정책을 혁신하기 위한 과제의 하나로 <예술의 현재성>에 관한 연구 제안
- <예술의 현재성>연구 진행(2021년) : <예술의 현재성>워킹 그룹 구성과 <예술의 현재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체계 개념화 및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진행
- <예술의 현재성>기반의 정책 제안 도출(2022년 상반기) : <예술의 현재성>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현재 예술 작업 방식의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형태의 예술지원사업 패러다임 전환 제안

예술 작업의  
현재성

예술인과 사회의  
현재성

예술인의 인식에  
대한 현재성

한국문화예술위원  
회의 현재성

<예술의 현재성> 개념화

## ② 연구 결과

- “예술 작업”의 변화
  - 예술인의 예술 작업에서 명확한 ‘작품’을 결과물로 하는 만큼 ‘리서치’와 ‘활동(거버넌스, 운영단, 시위 등)’의 작업 비중 높음
  - 예술인은 창작자와 기획자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음
  - 단일 장르 안에서의 작업이 60%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다장르 협업의 작업이 40%로 적지 않음
  - 예술 작업의 활동 방식 중에서 ‘유연한 협업’의 비중이 높으며, 향후 더욱 증가할 것이라 전망
- “지원사업 인식”의 변화
  - 아르코는 ‘예술 향유’보다는 ‘예술인의 창작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함
  - 예술 지원 체계의 방향은 ‘장르 중심’과 ‘시대와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별도의 트랙’을 모두 중시해야 함
  - ‘선별적 방식’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30.7%, ‘보편적 방식’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7%로 보편적 방식의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음

## ③ 제안 내용

- “(가칭)〈오픈트랙〉” 도입을 통한 패러다임 전환
  - 특징 : 현행 장르 중심의 지원 트랙과는 별도로, 개방형 예술지원 트랙 신설
  - 지원 내용
    - > 결과가 아닌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예술 창·제작을 위한 연구개발(R%D)
    - > 예술활동 방식의 다위적 흐름을 수용하는 리서치 및 작업, Covid19 및 기후위기, 예술과 기술 등 시대적 흐름을 수용하는 작업들에 대한 지원 체계 신설
  - 지원 시기 : 연 1회 공고에 의한 정기 지원 방식을 벗어나, 수시 지원 도입  
(분기 또는 월 단위로 지원 접수)
  - 지원 규모 : 장르 중심 예술지원 예산이 연 약 500억 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최소한 이의 약 30% 규모인 150억 원으로 하여, 예술현장에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 수 있어야 함(1개 프로젝트 평균 약 1,500만원 내외)
  - 고민 지점
    - > 지원 대상의 확대 : 창작자를 포함, 기획자, 큐레이터, 스태프 등 예술 창작 과정에 관여하는 주체를 넓은 범위의 예술인으로 설정
    - > 선정기준 : 작업의 미래 가능성과 잠재력을 타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보다 다면화된 평가 체계 도출
    - >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 선정자 대상으로 오픈 트랙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심층적인 연구 수행 필요

※ 연구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자료’란 참조

- 예술의 현재성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보고서(2021)  
<https://www.arko.or.kr/board/view/4009?bid=&page=&cid=1804072>
- 2021년 정책혁신소위원회 예술의 현재성 연구 최종보고서(2022)  
<https://www.arko.or.kr/board/view/5040?bid=&page=&cid=1804391>

## (2) 기술변화에 따른 예술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 ■ 활동의 배경 및 목적

- ‘기술변화에 따른 예술지원정책 개선방안’ 워킹그룹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비대면 콘텐츠가 급격히 증가하고 VR/AR/XR, 메타버스(Metaverse), AI, 빅데이터, NFT 등 새로운 기술(technology)이 놀랍게 성장·발전·수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기술변동이 예술분야에 던지는 의미와 이슈를 진단하고 향후 예술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 연구과제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함
  - 기술변화가 가져온(가져올) 삶의 변화 및 예술계의 변화에 대한 고찰
  - 예술+기술 융합실태와 문제점, 향후 전망 예측
  - 기술변화에 따른 예술지원정책 개선방향 및 구체적인 정책과제의 제안
-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예술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한 공론화를 수행하여 급격한 기술변화의 시대에 필요한 예술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제안함

■ 워킹그룹 구성 및 역할

- 정책혁신소위원회 위원 3인, 아르코 사무처 직원 2인이 내부워킹그룹으로 연구용역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고, '기술변화에 따른 예술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할 외부 연구진에게 연구용역(ARKO 기본연구) 위탁
-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주) 알프스에서 '기술변화에 따른 예술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
  - 연구기간 : 2021.7~2021.12
  - 연구기관 : (주) 알프스 (연구책임 : 설동준 이사)
  - 연구내용 : 기술변화가 예술계에 가져올 영향, 예술+기술 융합실태와 문제점, 향후전망, 기술변화에 따른 예술지원정책 개선방향 및 정책과제의 제안, 가이드라인(안) 제안
  - 연구방법 : 문헌연구, 관계자 인터뷰,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토론회 및 공개포럼 개최
  - 연구예산 : 49,600,000원
- '기술변화에 따른 예술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부 토론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제안(안) 도출 및 발표

구분		이름(소속)	역할
내부 워킹 그룹	정책혁신 소위원회 위원	박경주(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연구용역 방향 설정 및 논의공론화를 통한 피드백, 정책제언 도출
		유은선(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연구용역 방향 설정 및 논의공론화를 통한 피드백, 정책제언 도출
		양혜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용역 방향 설정 및 논의공론화를 통한 피드백, 정책제언 도출
	사무처 직원	나혜영(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	워킹그룹 운영
		한하경(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	연구용역 발주 및 관리, 공론화 운영 및 참여
외부 연구진		연구책임: 설동준(주식회사 알프스) 공동연구: 김미소(주식회사 알프스) 이수정(주식회사 알프스) 김유진(주식회사 알프스) 임상훈(한남대학교) 곽동근(문화기획자)	기술변화에 따른 예술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수행(문헌연구, 인터뷰, 설문조사, 공론화 참여, 보고서 집필)

■ 워킹그룹 활동의 과정과 방법

- '기술변화에 따른 예술지원정책 개선방안' 워킹그룹 활동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일시	회의명	주요 논의내용	참여
2021.3.18	12차 정기회의	○활동계획(안) 발표 및 논의	박경주, 유은선, 양혜원
2021.4.15	13차 정기회의	○추진방법 및 계획 논의	박경주, 유은선, 양혜원

2021.5.13	14차 정기회의	○진행현황 공유	박경주, 유은선, 양혜원
2021.6.10	15차 정기회의	○진행현황 공유	박경주, 유은선, 양혜원
2021.7.8.	16차 정기회의	○기술변동과 예술지원정책: 연구업체 선정 및 내용 공유	박경주, 유은선, 양혜원
2021.8.5.	17차 정기회의	○기술변동과 예술지원정책: 연구용역 업체와 워크숍(착수보고)	박경주, 유은선, 양혜원 설동준
2021.10.14.	20차 정기회의	○기술변동과 예술지원정책 중간보고 및 논의	박경주, 유은선, 양혜원 설동준
2021.11.25	오픈포럼	○기술변화에 따른 예술지원정책 오픈포럼	(주)알프스, 박경주, 유은선, 양혜원
2021.12.	2회 아르코 대토론회 세션	○(세션2)예술과 기술 융합 창작활동 현황과 향후 지원정책 방향 - 사회: 양혜원 위원 - 발제: 설동준 이사(주식회사 알프스), 이원곤 교수(단국대) - 토론: 정승 미술작가, 차진엽 콜렉티브에이 예술감독, 박경주 위원, 서연경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교육사업팀장, 이진준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박경주, 유은선, 양혜원 설동준
2021.12~2022.1	24차, 25차 정기회의	○워킹그룹 정책제안서 작성 및 공유	박경주, 유은선, 양혜원
2022.2.9	정책담당자 간담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담당자(미래사업부 및 정책혁신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제안(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	박경주, 유은선, 양혜원, 정창후, 나혜영, 한하경, 엄민영, 나은경, 백지윤, 전현희, 김세현
2022.2.17	26차 정기회의	○정책제안 발표 및 논의	박경주, 유은선, 양혜원
2022.3.17	27차 정기회의	○정책제안(안) 논의	박경주, 유은선, 양혜원
2022.4.13.	정책제안 포럼	○기술변화에 따른 예술지원정책 제안(발표: 양혜원)	박경주, 유은선, 양혜원

■ 기술변화에 따른 예술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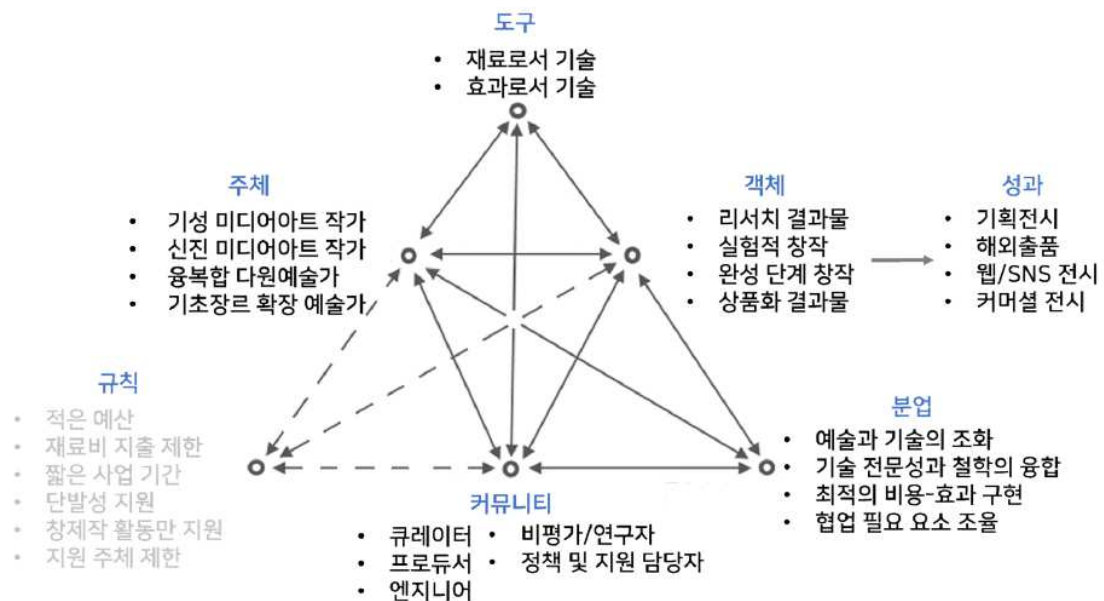
○ (주) 알프스가 수행한 '기술변화에 따른 예술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p>○아트앤티크의 변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 개괄</p> <p>○한국에서의 아트앤티크 작업 및 정책의 흐름 고찰</p> <p>○아트앤티크 현장의 요구 파악</p> <p>- 현장인터뷰(31회, 33명) : 진입경로와 작업동기, 기술학습방식, 기술구현 방식과 협업구조, 유통, 역할(분업), 생태계의 네트워크 특성, 공공정책, 가치/개념 등</p> <p>- 지원사업 참여자 설문조사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행(2021.11.16.~2021.11.27.), 총 54명 응답</p>	
구분	인터뷰 결과 현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요구
지원사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사업 방향성 및 관점의 재설정 필요</li> <li>• 기술중심이 아닌 예술의 관점에서 지원사업 설계 필요</li> <li>• 단기적/성과주의적 접근에서 장기적/실험주의적 접근으로의 전환 필요</li> </ul>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가 외 지원의 주체가 확대될 수 있는 지원트랙 필요</li> </ul>

기획 및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격구분이 모호한 지원사업 트랙간 내용 및 조건 조정</li> <li>• 신규작업 적극적 진입을 위한 자격조건 및 기준 재설정</li> <li>• 작품규격 및 발표형식의 자율성 확대</li> </ul>
지원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분한 작품기획과 실행이 가능한 사업기간 연장</li> <li>• 재료비 지출 제한 완화</li> <li>• 지원의 관점을 반영한 지원 조건과 서식 재설계</li> </ul>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방향에 부합하는 심가기준과방식 재설계</li> <li>• 기술전문가와 예술전문가의 균형있는심사위원 구성</li> <li>• 기술선택과 활용 중심이 아닌 예술로서의의미와 역할에 대한 평가 필요</li> </ul>

○아트앤티크 생태계 모델링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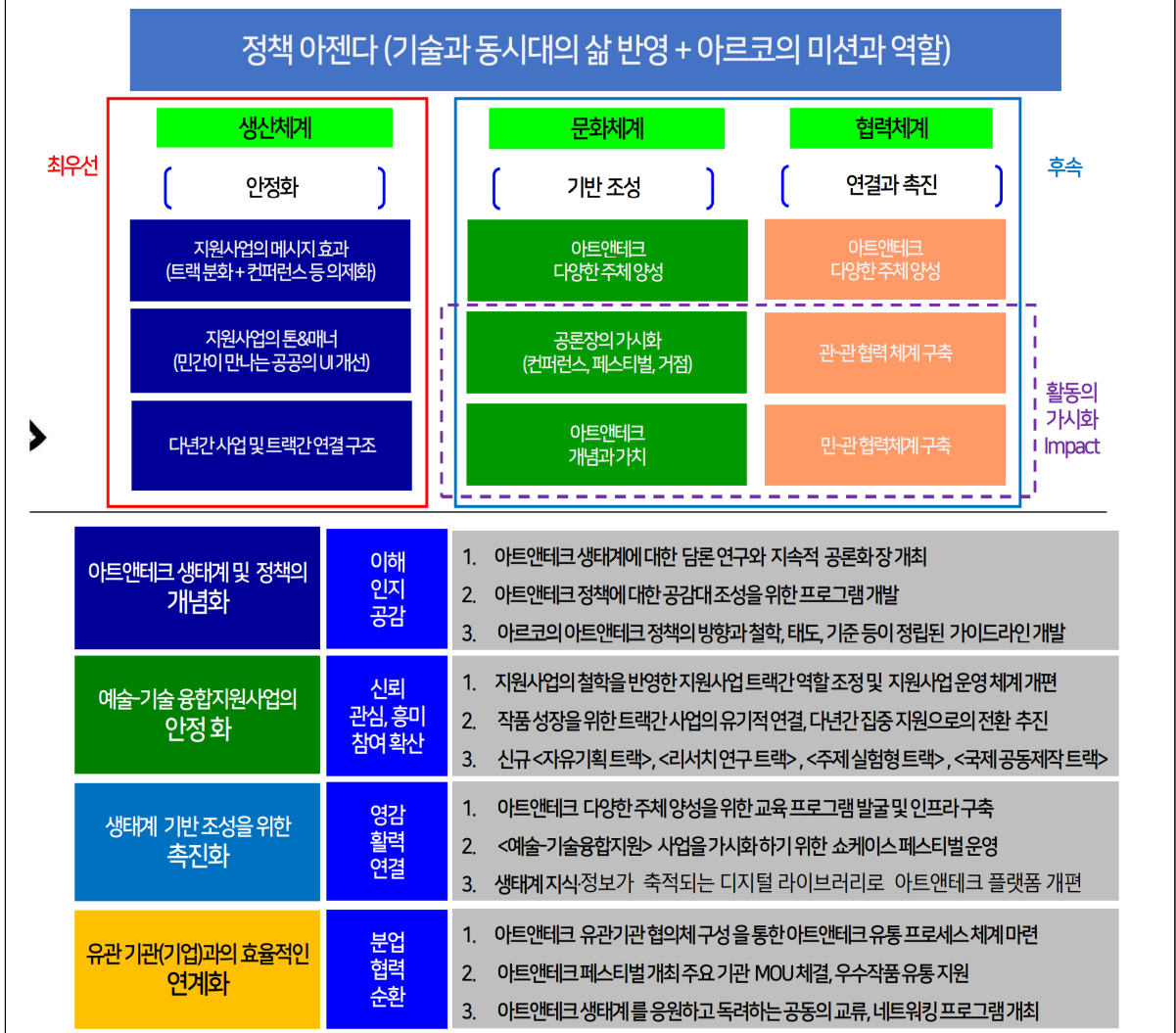
- 엄청난 속도차(기술변화속도와 학습 및 창작 속도)
- 낮은 시장성(설치 이슈, 여러 유지 보수 이슈가 필연적), ROI의 극심한 불균형
- 작동하지 않는 오픈소스
- 기능의 협력, 협력적 활동을 뼈대로 함
- 창작행위 외 생태계의 뼈대와 요소 대부분이 생성되지 않은 초기 생태계



○결론

1. 예술은 기술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 맺고, 기술은 첨단기술 나열식으로 구도화할 수 없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
2. 아트앤티크 현장은 개별 주체가 고립된 섬처럼 고군분투하는 상황이며, 생태계로의 발전을 촉진하는 기반 조성 접근이 필요하다.
3. 정책의 장기적 성과는 민간의 문화적 자산으로 축적되어야 하고, 이를 민관이 공유해야 한다.
4. 아트앤티크 현상에서 중심주의의 극복은 기본적 관점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 정책제언



■ 기술변화에 따른 예술지원정책 개선방안 워킹그룹의 최종적 정책제언 요약

○ 연구결과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술변화에 따른 예술지원정책 개선방안’ 워킹그룹이 제안한 정책제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기술변동에 대응한 예술분야 중장기 종합계획 및 로드맵 수립
2. 예술&기술 생태계의 확장과 성장을 위한 기반구축과 지원 확대
3. 전략적 기획사업 추진을 통한 선도적 모델 개발
4. Art & Tech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및 공간 확대
5. 기술역량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확대
6. Art & Tech 페스티벌 개최 및 국제교류 확대
7. 사업기간 확대 및 예산의 유연성 제고 등 사업개선
8. 디지털 예술관객 확대를 위한 비평 및 큐레이션 지원
9. Art & Tech 플랫폼 고도화 및 이용편의성 제고

※ 연구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자료’란 참조

- 기술변화에 따른 예술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2021)

<https://www.arko.or.kr/board/view/4009?bid=&page=&cid=1804230>

### (3)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정책 연속 워크숍

#### ■ 활동의 배경 및 목적

- ‘기후위기와 예술’ 워킹그룹은 예술정책 환경변화에서 가장 위협적 과제이자 기회로 제시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그리고 대전환의 국가비전 ‘한국판 뉴딜’ 이슈에서 문화예술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
- 기후-예술 워킹그룹은 기후위기 맥락에서 문화예술의 의미와 역할을 탐색하고, 예술현장과 공론화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예술정책을 도출·제안함. 구체적 활동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기후위기와 문화예술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와의 논의 그리고 국내외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 문화예술의 담론을 구성: 기후위기시대 문화예술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문제설정
  - 둘째, 예술현장과 소통을 통해 기후-예술 참여 동향을 파악하고 기후위기 시대의 창작환경 조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
  - 셋째, 기후위기 맥락에서 문화예술적 접근과 대안을 도출하고 정책을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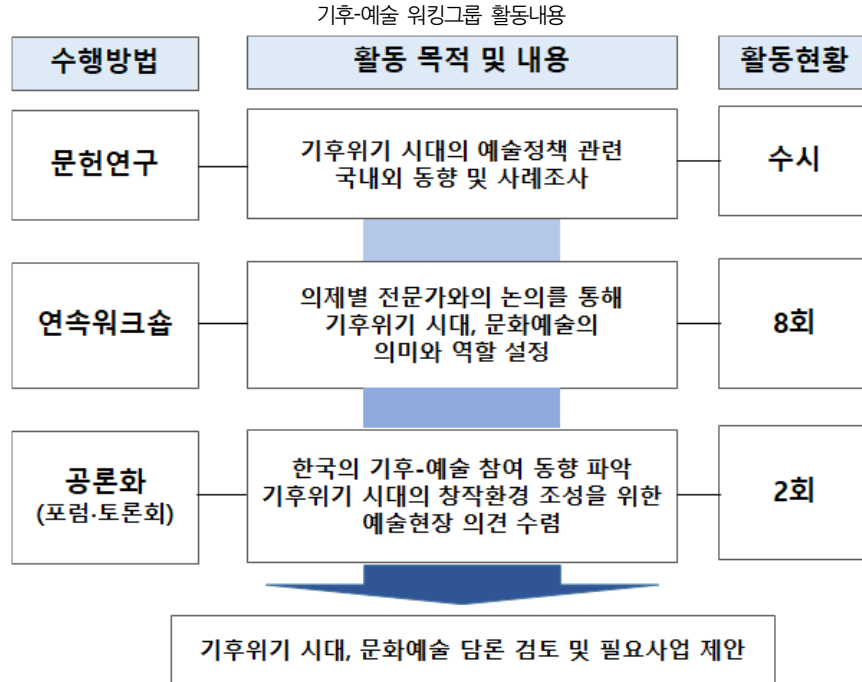
#### ■ 워킹그룹 구성 및 역할

- 정책혁신소위원회 위원, 아르코 사무처 직원, 환경분야 연구원 총 6인의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기후’를 중심으로 각 분야 전문가 및 예술가와 소통하고 내부 연구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예술정책’을 제안

구분		이름(소속)	역할
내부 워킹그룹	정책혁신소위원회 위원	이원재(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연속워크숍공론화 구성 및 참여, 보고서 집필
		정유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연속워크숍공론화 구성 및 참여, 보고서 집필
		성지수(콜렉티브 텡굴 대표)	연속워크숍공론화 구성 및 참여, 보고서 집필
	사무처 직원	나혜영(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	워킹그룹 운영, 관련 사례조사 및 보고서 집필
		김효영(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	연속워크숍공론화 운영 및 참여
외부 워킹그룹		윤민지(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연속워크숍공론화 구성 및 참여, 보고서 집필

#### ■ 워킹그룹 활동의 과정과 방법

- 기후-예술 워킹그룹은 기후위기 시대의 문화예술에 대한 담론을 발굴하고 문화예술적 접근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
  - ① 기후위기에 대한 문화예술적 접근의 필요성과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사회문화적 변동의 양상과 기후-예술 국내외 사례를 분석
  - ② 기후위기 시대에 문화예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담론과 역할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연속워크숍을 추진
  - ③ 기후위기 의제에 참여(주제, 활동, 탄소중립 등)하는 예술가(단체)의 의미와 양상을 살펴보고 기후 참여 작품 활동에서 겪는 어려움과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공론화를 추진



■ 기후위기 예술정책 연속워크숍 추진내용

- 행사명 : <기후위기와 예술정책> 연속 워크숍
- 기 간 : 2021년 5월 ~ 12월
- 장 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 가능
- 방 식 : 비공개 연속 워크숍(월 1회, 8회 워크숍)
- 추진일정 및 내용

일정(안)		주제	사회	발제	토론
1	5.25(화) 12:30 예술가의 집	기후위기와 예술정책 동향조사	이원재	나혜영(행정학)	워킹그룹
2	6.29(화) 15:00 예술가의 집	미학(예술) 관점에서 기후위기 읽기	이원재	임정희(미학)	워킹그룹
3	7.20(화) 15:00 온라인	기후위기와 예술의 문제 설정	성지수	채효정(정치학)	워킹그룹
4	8.24(화) 15:00 온라인	국가정책으로서의 그린뉴딜과 예술뉴딜의 접점들	윤민지	이유진(환경정책)	워킹그룹
5	9.29(수) 10:30 예술가의 집	기후위기에 대한 예술가 집단회 :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작업에 대하여	이원재	성지수, 이해원, 한윤미, 곽수아	
6	10.14(목) 15:00 예술가의 집	기후위기 시대, 예술정책의 과제들	정유란	이원재(문화정책)	워킹그룹
7	11.09(화) 11:00 예술가의 집	기후위기 포럼 추진계획 검토		워킹그룹	
8	11.30(화) 14:00 예술가의 집	기후위기 예술정책 제안서 초안 검토		워킹그룹	
마무리(12월 대토론회)		세션구성		추후 섭외	

※ ‘기후위기 예술정책’ 워킹그룹의 활동보고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자료부분에 게시 예정  
<https://www.arko.or.kr/board/list/5040>

○ 각 회차별 워크숍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회차별 주제	주요내용	시사점
제1회 기후위기 예술정책 동향과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위기의 현상과 의미에 내포된 다양한 문제의식과 예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지속가능발전의 사회전환 패러다임에서 문화정책으로 접근 : 문화권 보장, 문화영역 녹색화, 기후인식 촉진, 생태적 시민의식 확대</li> <li>어떤 활동들이 있는가? : 대지예술-공공참여 환경예술, 기후 페스티벌 등 기후인식행동 촉구, 예술활동 자체의 Greening, 예술+탄분야 확대 등</li> <li>영국ACE는 규제와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계 Greening 촉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론 :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에서 문화예술의 역할과 연계</li> <li>- 기후 의식, 행동을 변화시키는 촉진자</li> <li>- 관점 전환과 대안 상상의 플랫폼</li> <li>- 예술+탄분야, 참여예술 활발</li> <li>장르예술로 포함되지 않았던 예술의 새로운 역할, 활동지원 필요</li> <li>예술계에 '기후'인식적용 지원 필요</li> </ul>
제2회 미학의 관점에서 보는 기후위기와 예술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성적 지각(지각력을 어떻게 넓히는가)으로서 미학에 주목</li> <li>- 세계에 대한 확대된 관심을 이어주는 심층적 심리화의 역할</li> <li>- 이성과 감성, 물질과 정신 등 이원화의 문제를 넘어서 적극적 연합이 필요하고 예술정책도 이러한 연합을 고려</li> <li>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적 상상력의 원천</li> <li>- 상징체계를 통해 외부에 있는 것을 내 안으로 데려오고</li> <li>- 객체로서의 기술, 물건, 사물을 나와 우리의 세계로 연결</li> <li>생태학적 관점에서의 미학: 겸손, 양보, 공유 능력 배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론: 기후위기를 감각하고 인지하는 감성적·생태적 관점에서의 미학</li> <li>- 감성적 지각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에 대한 확대된 관심을 이어줌</li> <li>- 감성적 폭발을 통해 반응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됨</li> <li>인간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제시하고 열어주는 예술지원이 필요</li> </ul>
제3회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 상상력이 필요한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는 기후위기를 어떻게 표상하고 감각하는가?</li> <li>- 녹아내리는 지구, 불쌍한 북극곰 등 여전히 외부의 시점에서 기후위기를 타자로 바라봄(감각의 분리, 포르노적 감각)</li> <li>- 기후위기 문제를 개별 문제로 바라보는 표상 체계를 뒤집고, 감각화하고 총체적으로 재편해야 함</li> <li>기후위기 시대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li> <li>- 예술의 과제는 무엇을 상상할 수 있고, 상상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약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li> <li>- 감각을 전환하고 맥락을 발굴표현해야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사회에 나타내는 예술이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론 : 한국사회에서 기후위기 담론은 지속가능하고 살고 싶은 사회에 대한 근본적 논의를 놓치고 있음. 전혀 다른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하고 그 망치가 예술과 문화일 수 있음</li> <li>정책화는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필요</li> <li>- 기후위기 시대 예술은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이들을 드러내고 사회적 힘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함</li> </ul>
제4회 국가정책으로서의 그린뉴딜과 예술뉴딜의 접점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소중립이 한국사회에 던지는 불편하지만 직면해야 할 질문들</li> <li>- 기후위기에의 위기감은 있으나 관성의 지속, 성장과 수요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지속, 미래 성장방향의 전환 필요</li> <li>- 사회적 지원, 공동체 연대가 약한 상황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가격비용 정책은 상당한 부담과 위험이 될 수 있음</li> <li>- 정부 탄소중립 계획에서는 문화예술 접목가능 부분이 잘 보이지 않음. 문체부는 홍보로 축소하여 역할을 인지</li> <li>그래서 어떻게: 예술가들이 무엇을 이야기 할 것인가?</li> <li>- 사회의 목표 변화와 그 조건을 무엇인지 논의·인식하는 과정</li> <li>- 기후위기로 인한 우울감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술의 역할,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예술의 역할 모색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론 : 미래 세상을 공동으로 상상하고 표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함</li> <li>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회복인프라 중요</li> <li>- 공공의료·교통·돌봄, 전환학습과 학교, 전환 문화예술, 자원순환, 재난대비 매뉴얼과 훈련, 지역생산 재생에너지 등</li> <li>기후위기, 탄소중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표현, 해결의 과정을 논의하는 역할 등 모색 필요</li> </ul>
제5회 예술인 집담회 기후위기 시대에서 예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위기 시대, 예술가의 정체성과 작업에서의 특징</li> <li>- 기후위기 당사자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예술가로서의 감각과 활동가로서의 강력한 행동력) 고민하고 실험 중</li> <li>- 기후위기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고, 거대한 기후위기 문제에서 어떻게 직면할 수 있는지를 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작업</li> <li>- 아카데미와 예술의 협업, 사람을 만나 커뮤니티를 만드는 비중이 높음: 참여예술, 거리예술, 예술기술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li> <li>지속가능한 창작방식에 대한 의견</li> <li>- 기존 예술지원의 기준(수월성)과 경쟁방식이 아닌, 기후위기를 깊게 사유·공유하고 작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li> <li>- 기후위기의 정부 정책을 전달하거나 주제로 접근하는 방식 지양</li> <li>- 지속가능한 창작방식 등 환경문제를 다루보지 않은 예술가들을 다양한 방식(세미나 등)으로 끌어들이는 작업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지원사업과 다른 방향과 방식 필요</li> <li>- 예술작업 목적(공공예술), 준비(리서치 기간, 비중이 높음), 예술활동의 특징(관객 참여형, 커뮤니티 아트 등) 등 기존 지원사업과 다른 특징 반영</li> <li>-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기후위기-예술의 의미와 필요사업을 논의하는 방식</li> <li>지속가능한 창작방식 지원 필요</li> <li>- 환경과 기후를 전달할 인력(컨설팅), 비용 그리고 정책과 연구 등</li> <li>- 동료 만들기, 연대의 감각을 만드는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조성</li> </ul>

■ 기후위기 예술정책 포럼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을 말하다’

- 행사명 :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을 말하다
- 주최 및 주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녹색전환청년그룹, 녹색전환연구소
- 일시 : 2021년 11월 24일(수) 14:00~17:00
- 진행방식 : ZOOM과 YouTube를 활용한 온라인 토론회
- 포럼 구성 및 참여자

구분	구성 및 참여자
1부 (60분)	주제 : 기후위기와 예술의 관계맺기
	사회 : 성지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소위원회 위원/녹색전환청년그룹) 기조발제 : 왜 기후위기와 예술인가 : 김정은(다원예술) 사례발표 : 기후위기 예술 사례(각 10분 발표) · 김보람 / 미디어아트 작가, 무제의 길 · 곽수아 / 서강대학교 · 박지선 / 독립 프로듀서(프로듀서 그룹 도트) · 김지연 / 사운드아트
2부 (80분)	주제 : 기후위기의 시대, 예술정책을 상상하다
	사회 : 정유란 / 문화아이콘 대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코로나19대응 팀장 · 발제1: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 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 나혜영(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 책임연구원) · 발제2: 우리에게 이런 예술정책이 필요하다/ 성지수(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소위원회 위원/녹색전환청년그룹) · 발제3: 예술뉴딜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이원재(문화연대 기후위기 운동모임 Still Aliv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20분	종합토론

- 포럼발제 및 토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내용
(기조발제) 기후위기 시대, 예술로 살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위기, 예술의 역할과 필요성</li> <li>- 기후위기를 수치화하거나 시각화하는 자료는 많지만 그 너머를 보기는 어려움. 그 너머를 상상하기 위해 예술의 역할이 필요</li> <li>- 기후위기는 나, 타인, 비인간적 존재들과 관계 맺기의 방식을 다시 설정하는 것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은 보기의 방식이 아닌, 살아보기의 방식으로 관계를 전환하는 것</li> <li>• 예술로 살아보기</li> <li>- 기후위기가 작업의 소재만이 아닌 삶의 방식과 작업의 방식의 연동이 필요</li> <li>- 이를 위해 예술의 모습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의, 살아보기를 실천하는 새로운 예술창작방법론에 대한 실험과 연구가 필요</li> </ul>
(사례발표) 기후위기 예술활동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기) 2020 기후변화 레지던시에 참여하면서 기후문제에 대해 예술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고민</li> <li>• (작업1) 기후위기로 멸종위기에 처한 침엽수를 구하는 보드게임 발표 예정</li> <li>• (작업2) 위 보드게임을 바탕으로 ‘불타는 집’ 전시 진행. 웹게임, 스토리텔링, 인스톨레이션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 전시용 쓰레기를 최대한 만들지 말자. 사용되는 전력량을 최소화하는 작품을 제작</li> <li>- 과정특징 : 참여자들과 전시목표 및 내용에 대한 합의 과정 추진. 이전 작업과 전혀 다른 종류의 뇌를 사용하는 느낌이었고 새로운 경험의 축적이 필요함</li> </ul> </li> <li>• (계기) 미디어아트 작업을 하는 학생, 예술가, 기후위기 당사자로, 초기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다가 그것이 기후위기 문제로 이어져, 최근에는 기후위기와 연계해서 과학기술을 대하는 태도를 고민</li> <li>• (작업) 그린버스 프로젝트 : 영국과 한국의 작가(활동가, 예술가, 연구자)들이 기후위기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쿼어생태학(정상과 자연스러운 것에 권력을 주지 않는,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기)을 적용한 문구를 프린트하여 시위를 하고, 장면을 아카이빙하여 웹사이트에 전시</li> <li>- 과정특징 : 쿼어한 미래를 상상하는 계기, 영국작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책임성이나 긴급성에 대한 인식기 많아 바로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작업이 많음을 알게 됨(예술가이자 활동가)</li> </ul> </li> <li>• (계기 및 활동 내용) 화천 산천어 축제의 반생태성, 기후변화로 인한 축제 취소에서 생태전환의</li> </ul>

	<p>계기 발견, 2020년부터 화천의 예술터밭이라는 예술가 레지던시 공간을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의 역할과 책임, 인간중심주의에 저항한다는 의미 탐색 등</li> <li>- (활동) 예술가, 기획자 등이 모여 6개월 동안 간헐적으로 워크숍 진행(공동 리서치, 공연, 토론 등) 후 개별리서치를 진행공유, 자신의 작업으로 확장(오픈터밭)</li> <li>- (의미) 위의 과정에서 영감, 지식, 정보를 확장하는 시너지와 연대와 협력(네트워크)이 형성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기) 기후위기가 일상에서 감각적으로 경험되기 어려움(잘 안보이고 잘 안들린다)에 주목, 기후활동가와 공동체에서 느껴지는 연결과 돌봄을 노래나 구음을 통해 연결하고자 함(사운드아트)</li> <li>• (작업) 기후활동가들과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연결의 감각들을 담은. 생체, 실외의 소리를 레코딩하고 음향적 사건이 벌어지는 맥락에 관심을 두고 작업을 진행.</li> <li>- (의미) 예술작업 안에 사람(목소리)이 들어오는데, 누락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고민하게 됨. 또한 기후위기를 구체적 일상이나 개인, 시간의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위기를 주목하게 됨</li> </ul>
(발제1) 기후위기 예술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위기 대응에서 문화예술의 의미(역할) 및 사례 공유</li> <li>- 기후위기를 인지하고 감각하는 강력하고 효과적 방법</li> <li>- 기후위기 적응 방법을 찾아가는 실천의 과정이자 기후행동 참여의 플랫폼</li> <li>•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술정책 방향 : 대응과 전환을 실현하는 동력으로서 문화예술정책 추진</li> <li>- 문화예술지원의 외연 확대: 뉴딜연계 문화예술 이니셔티브, 기후 커뮤니케이션 예술+타분야 사업 등</li> <li>- 문화예술분야 Greening 지원: 환경적 지속가능성 추진 필요성&amp;구체적 시그널, 추진기반 마련 등</li> <li>- 공공부문 기후대응 리더십 실천: 기관운영 환경계획 및 성과보고, 예술현장 녹색화 기회창출 등</li> </ul>
(발제2) 우리에게 이런 예술정책이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인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면서 예술인으로서의 작업이 시민-활동가로서의 정체성과 분열되지 않고, 예술작업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정책을 추구</li> <li>• 예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대 : 예술 작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예술인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확대되어야 하며, 일상적 재난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 필요 : 예술인 주거, 먹거리, 이동 등 삶의 지속가능성에 관심, 사회적 일자리와 활동 연계, 심리상담, 정신건강 지원 병행</li> <li>• 네트워킹 및 정보공유 플랫폼 지원 : 아티스틱 리서치 작업지원 확대, 자료 아카이빙공유 확대</li> <li>• 창작활동 및 단체 운영의 녹색화 지원 : 탄소발자국, 가이드라인, 녹색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li> <li>• 다원화된 예술현장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예술정책 필요 : 포괄적 지원, 주변화된 예술 지원 제고</li> </ul>
(발제3) 예술뉴딜의 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분야, 환경이슈와 문화정책의 연결이 아닌, 재난사회 문화예술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기후위기 시대와 문화의 관계성에 주목한 문화예술 정책 필요</li> <li>•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대한 성찰, 인지, 감각의 문제이며 삶의 방식을 전환해야 하는 상황</li> <li>•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문제, 불평등 해소, 탈탄소 경제전환이라는 3대 축이고, 여기에 예술을 연계</li> <li>• 결과중심→예술인 중심, 일자리 형성, 리서치 및 과정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 예술활동 지원</li> </ul>

■ 제안의 주요내용

정책 과제	주요 내용
① 기후위기 관점에서 〈문화정책 중장기 비전로드맵〉수립과 〈문화를 통한 기후위기 적응〉추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후위기의 관점에서 〈국가 문화정책 중장기 비전로드맵〉 수립</li> <li>② 〈문화를 통한 기후위기 적응〉 추진</li> </ol>
② 예술인 사회적 안전망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재난사회의 차원에서 예술인에 대한 정책적 접근과 제도화 추진</li> <li>② 예술 결과물과 사업성과 중심에서 사람(예술인·작업자) 중심으로 정책목표 전환</li> <li>③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안적 시나리오 수립, 지원방식의 탄력성 확대</li> <li>④ 일상적 재난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 필요</li> </ol>
③ 예술 창작 활동과 단체 운영의 녹색화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아카이브 구축 및 이용 활성화</li> <li>② 문화예술 분야 탄소발자국 지표와 산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컨설팅 지원</li> <li>③ 예술현장 녹색화 지원 및 인프라 구축</li> <li>④ 예술현장 녹색화와 지원사업 구조 연계</li> <li>⑤ 예술현장 녹색화에 대한 공론화 및 예술계 내외의 네트워킹과 워크숍 지원</li> </ol>
④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후위기 문화적 적응과 이니셔티브 형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문화예술적 접근기회 및 역량 향상</li> <li>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예술 현장의 탄소중립 기반 조성</li> <li>③ 예술지원기관으로서 기후위기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과 리더십 실천</li> </ol>

## 2. 예술 현장과의 소통

### 1) 아르고 현장 대토론회 참여

#### ■ 2020년 제1회 아르고 현장 대토론회 정책혁신소위원회 세션구성운영

##### ○ 추진배경 및 목적

- 2020년 코로나19 발생, 제7기 위원회 출범 등 내외부 변화에 따라 문화예술정책의 이슈와 쟁점들에 대한 논의와 공론화의 필요성이 증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장소통, 정책혁신, 성평등예술지원 3개 소위원회와 코로나 19대응 TF에서 논의된 아젠다들을 대내외에 공유하고 예술현장과 함께 논의를 구체화하고자 대토론회를 추진
- 정책혁신소위원회는 사회변화에 따른 예술생태계의 변화를 포착하고 변화의 아젠다를 제시하는 세션을 구성운영

#####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0년 12월 17일(목) 13:30~15:20
- 장소 :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

##### ○ 진행방식

- 코로나19로 인하여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현장관객 없이 모두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

##### ○ 세션구성

구성 및 참여자
주제 : 사회변화 그리고 예술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 이원재(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 정책혁신소위원회 위원장)</li> <li>· 제언1 : 헛도는 험치, 곁도는 소통 : 예술정책네트워크는 혁신되(었)나? / 최승훈(문화산업정책협의회 정책위원)</li> <li>· 제언2 : 더 늦기 전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예술정책 / 성지수(콜렉티브 댄글 대표)</li> <li>· 제언3 : 지역과 청년이 부상하는 예술정책의 미래 / 성연주(서울청년예술인회의 운영단)</li> <li>· 제언4 :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작업에 대한 지원방식의 다변화 / 전유진(여성을 위한 열린 기술랩 소장)</li> <li>· 제언5 : 예술지원 패러다임 전환의 조건들 / 최도인(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li> <li>·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li> </ul>



**세션3**  
사회변화 그리고 예술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사회 이원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제언1 헛도는 험치, 곁도는 소통 :  
예술정책네트워크는 혁신되(었)나?  
최승훈 문화산업정책협의회 정책위원

제언2 더 늦기 전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예술정책  
성지수 콜렉티브 댄글 대표

제언3 지역과 청년이 부상하는 예술정책의 미래  
성연주 서울청년예술인회의 운영단

제언4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작업에 대한  
지원방식의 다변화  
전유진 여성을 위한 열린 기술랩 소장

제언5 예술지원 패러다임 전환의 조건들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세션3**

사회  
이원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제언  
최승훈 문화산업정책협의회 정책위원  
성지수 콜렉티브 댄글 대표  
성연주 서울청년예술인회의 운영단  
전유진 여성을 위한 열린 기술랩 소장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

**아르고  
현장  
대토론회**

※ 논의의 주요 내용은 『2020 아르크 현장 대토론회 사후자료집』 참조

<https://www.arko.or.kr/board/view/5040?bid=&page=1&cid=1802541&searchValue=%EB%8C%80%E D%86%A0%EB%A1%A0%ED%9A%8C&searchOperator=or&searchField=title,body>

■ 2021년 제2회 아르크 현장 대토론회 워킹그룹별 세션구성-운영

○ 주제 : 문화예술의 도전과 변화,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밝힌다

- 이슈 1. 문화예술의 도전과 변화
- 이슈 2. 문화예술의 현재성 진단
- 이슈 3. 문화예술의 미래대응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1년 12월 8일(수)~12월 15일(수)

○ 진행방식

- 온라인 줌 웨비나 및 유튜브 생중계

○ 세션구성

구분	구성 및 참여자
DAY1	<p>주제 : 예술과 기술 융합 창작활동 현황과 향후 지원정책 방향</p> <p>사회 : 양혜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제1 : 예술과 기술 융합 창작 생태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설동준(알프스 운영이사)</li> <li>· 발제2 : '예술&amp;기술' 융합을 위한 창작지원방안 / 이원곤(전 단국대학교 교수)</li> <li>· 토론1 : 정 승(미술작가)</li> <li>· 토론2 : 차진엽(컬렉티브 A 예술감독)</li> <li>· 토론3 : 서연경(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교육사업팀 팀장)</li> <li>· 토론4 : 박경주(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li> <li>· 토론5 : 이진준(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li> </ul>
DAY2	<p>주제 : 예술가의 눈으로 바라본, 예술의 존재방식에 대한 현재와 미래</p> <p>사회 : 최도인(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소위원회 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제1 : &lt;예술의 현재성&gt; 연구결과 공유 / 성연주(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소위원회 위원)</li> <li>· 발제2 : &lt;예술의 현재성&gt; 진단에 따른 정책과 제도적 과제 / 정윤희(미술작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소위원회 위원)</li> <li>· 토론1 : 고안나(태평소, Shehnai 연주자, T&amp;S Project 디렉터)</li> <li>· 토론2 : 불나방(남하나)(시각예술가, 기획자)</li> <li>· 토론3 : 봄로아(시각예술가, 예술청 운영위원)</li> </ul>
DAY4	<p>주제 : 기후위기와 시대의 예술을 말하다</p> <p>사회 : 정유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제1 : 기후위기 속 새로운 예술생태 상상하기 / 이해원(Blooming Ludus 공동예술감독, 연극연출가)</li> <li>· 발제2 : 기후정치 예술인 워킹그룹을 제안합니다 / 성지수(컬렉티브 똥굴 대표, 화학작용 공동예술감독)</li> <li>· 토론1 : 정안나(극단 수수파보리 대표)</li> <li>· 토론2 : 유은강(배우)</li> <li>· 토론3 : 한윤미(바람컴퍼니 창작자)</li> <li>· 토론4 : 김재상(문화연대 기후위기 운동모임 Still Alive)</li> <li>· 토론5 : 유서진(서양화 작가)</li> <li>· 토론6 : 이 숲(다원예술 뮤지션김보람)</li> <li>· 토론7 : 김효영(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임, ARKO 주니어보드 멤버)</li> </ul>

**DAY4** | 12월 15일(수) 13:00-15:00 | 사회 | 정유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 세션7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을 말하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해짐에도 예술정책 차원의 접근이 부재함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후위기에의 예술적 접근에 관한 연속워크숍을 추진합니다. 본 세션에서는 연속워크숍과 온라인 공론장(11, 25.)의 연장선상에서, 기후위기 시대 예술작업의 의미와 예술지원기관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

**이슈3 문화예술의 미래 대응**

**발제1 기후위기 속 새로운 예술생태 상상하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가들 관계를 중심으로  
 이해원 Blooming Ludus 공동예술감독, 연극연출가

---

**발제2 '기후정의 예술인 유희그룹'을 제안합니다**  
 공정하고 생태적인 예술계의 관계맺기를 상상하며  
 성지수 콜렉티브 필름 대표, 희극작가 공동예술감독

---

**토론**

정안나 극단 수수파브리 대표 한윤미 바람길마니 창작자 유서진 사암화 작가 이슬 다원예술 뮤지션	유은강 배우 김재상 문화연대 기후위기 운동모임 Still Alive 김효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임, ARKO 주니어보드 멤버
---	---



LIVE 제2회 아르고 현장 대토론회

사회 | 정유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 논의의 주요 내용은 『2021년 제2회 아르고 현장 대토론회 사후자료집』 참조

<https://www.arko.or.kr/board/view/5040?bid=&page=1&cid=1804442&searchValue=%EB%8C%80%ED%86%A0%EB%A1%A0%ED%9A%8C&searchOperator=or&searchField=title,body>

## 2) ARKO 정책혁신소위원회 정책제안 포럼 <예술의 현재성과 정책과제들>

### ■ 추진배경 및 목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7기위원회 출범과 함께 정책혁신소위원회(정책소위)를 구성하여 운영 해왔으며, 2022년 5월로 약 2년 동안의 활동 기간이 마무리될 예정
- 정책소위 예술위 전체적인 정책 현안들에 대한 검토-제언, 예술위 중장기 정책의제 분석-도출, 예술 현장과의 소통 및 토론 등을 다각적으로진행해 왔음
- 정책소위는 초기 예술위 관련 정책의제 분석을 통해 정책소위의 의제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1년도에 3개 워킹그룹(①예술의 현재성, ②기술과 예술, ③기후위기와 예술)을 구성하여 연구조사, 정책토론 등을 진행

- 현재까지 축적된 활동 과정들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보완하여 정책소위의 활동 결과를 도출하고 사회적으로 공유제안하고자 함

■ 일 시 : 2022년 4월 13일(수) 15:00~18:00

■ 진행방식 : ZOOM을 활용한 온라인 토론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채널 동시 생중계 및 녹화 영상 게시)

■ 세션구성

구분	구성 및 참여자
주제발표 (60분)	사회 : 이원재(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소위원회 위원장) · 주제1 : 예술지원사업의 패러다임 전환 제안 : 예술의 현재성을 반영한 오픈트랙 도입을 중심으로 / 성연주(정책혁신소위원회 위원, 문화사회학 연구자) · 주제2 : 기술변화에 따른 예술지원정책 제안 / 양혜원(정책혁신소위원회 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 주제3 :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정책 제안 / 성지수(정책혁신소위원회 위원, 콜렉티브 댕굴 대표)
지정토론 (60분)	· 토론1 : 김진환(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장) · 토론2 : 정중은(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토론3 : 이혜원(블루밍루더스 공동예술감독, 연극연출가)
종합토론(60분)	

※ 논의의 주요 내용은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uB-ZYrqCuus>』 참조

■ 주요 논의

○ 예술의 현재성을 반영한 오픈트랙(안) 도입

구분	주요내용	
제안 내용	개념 및 특징	장르중심 지원트랙과 별도의 개방형 예술지원트랙
	지원내용	예술활동의 다원적 흐름을 수용하는 예술활동(R&D 등) 지원
	지원시기	수시지원(분기 또는 월단위)
	지원규모	장르중심 예술지원 총액의 30%(예술현장의 유의미한 변화 창출) * 1개 프로젝트당 평균 1,500만원 내외
	유사사례	영국예술위원회 Developing your creative practice
토론 내용	접근방법	예술의 현재성보다 예술인과 예술을 둘러싼 환경의 현재성에 주목 창제작을 위한 리서치나 활동보다 예술가 자신에 집중하여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지원으로 확대
	검토사항	선별이 가능한가? 어떻게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 새로운 활동 지원의 방식 검토(Award, 예술계 스스로 공동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 지원)
	제안사항	예술 자체의 사회적 가치 확산 강화 타 기관(지역문화재단 등)과 공유협력 추진기반 마련(공론화 등) 현재 사업에 적용하는 방안 검토(예: 예술인 인력양성사업 등) 지역에서의 예술의 현재성 연구로 논의 확대

○ 기술변화에 따른 예술지원정책 제안

제안내용	토론내용
1. 예술&기술 중장기 종합계획 및 로드맵 수립	1. 백화점식 로드맵 지양 → 先後輕重 핵심사업 후 확산을 위한 로드맵
2. 예술&기술 생태계 확장성장 기반구축 및 지원확대	2. 예술생태계의 행위자(예술가-소비자) 욕구를 매칭시켜줄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 설계
3. 전략적 기획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적모델 개발	3. 기함 프로젝트 추진 : 마케팅 포인트와 내부 결집을 위한 혁신적 프로젝트
4. Art & Tech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및 공간 확대	4. 문화예술교육자와 수용자를 연결, 팬덤과 스타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 제공
5. 기술역량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5. 협업을 위한 리터러시 중심의 역량 강화 지원
6. Art & Tech Festival 개최 및 국제교류 확대	6. 예술기술 글로벌(투자) 네트워킹의 거점으로 역할
7. 사업운영 개선: 사업기간 확대 및 예산 유연성 제고	7. 실험중심 특징을 반영한 파격적 성과지표 도입
8. 디지털 예술관객 확대를 위한 비평큐레이션 지원	8. 유튜브 친화 큐레이션 관점 도입
9. Art & Tech 플랫폼 고도화 및 이용편의성 제고	9. 디지털 트윈 등 실행력과 로직이 잘 나타나고, 관련 기술부처 등 연계협력이 가능

○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정책 제안

구분	주요내용	
제안 내용	기후위기 관점에서 국가 문화정책 비전 및 계획 수립	① 기후위기생태문화 관점에서 문화정책 로드맵 수립 ② 예술을 통한 기후위기 이슈화 및 대안모색 프로젝트
	예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대	③ 재난사회에 대응하는 문화적 차원의 정책체계 마련 ④ 지속가능한 예술을 위한 통합적 관점의 정책 추진
	예술창작 활동과 단체운영의 녹색화	⑤ 예술현장 녹색화를 위한 기반 조성 ⑥ 예술계 스스로 녹색화 논의를 만들어가는 기회 제공 ⑦ 예술현장의 녹색화와 지원사업 연계구조 마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후위기 대응 이니셔티브 형성	⑧ ARKO 기후위기 대응 중장기 계획수립 및 리더십 실천 ⑨ 예술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접근기회 및 역량강화 ⑩ (가칭)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특별위원회 운영
토론 내용	정책수립의 방향 제언	·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을 향한 예술정책 · 트렌드가 아닌 지속가능한 예술정책 · 시민과 함께하는 사람중심생태중심의 예술정책
	추진방법에 대한 제언	· 그린 워싱 지양 : 주제로의 접근이 아닌 석유 의존도 감축 · 새로운 정책사업개발이 아닌, 기존 사업의 관점방법 전환 · 예술창제작~향유까지 자원순환 관점에서 시스템 구축운영 · 예술기관으로서 지역(시민)에 지속가능 문화를 발신

### 3. 아르코 현안에 대한 논의

- 제7기 정책혁신소위원회는 예술지원정책 주요 과제들(정책 자율성 확보, 재원 안정화, 심의와 평가제도, 지원사업구조 등)에 대한 정책 연구와 대안 제시

주제	회의(일시)	주요 논의내용
예술위원회 사업방향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	3차 정기회의 2020.9.17	○ 21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계획(안) 공유
	7차 정기회의 2020.11.19	○ 예술위원회 정책연구 스크리닝 및 향후 방안 ○ 문예기금 예산 분석방안 논의
	10차 정기회의 2021.1.28	○ 2021년 아트앤티크 융합지원사업 워크숍 결과 공유 ○ 예술위원회 정책연구 운영방향 공유 및 논의
	18차 정기회의 2021.9.2.	○ 2022년 정시공모사업 추진 관련 논의 - 공모사업 기본방침, 지원심의제도 개선 등
예술지원을 둘러싼 외부환경 변화 양상 논의	9차 정기회의 2021.1.14	○ 문화예술환경의 변화: 문화예술진흥법 정비를 위한 사전연구 공유 ○ 전략사업부 2021년 아트앤티크 융합사업 계획 논의
심의제도 개선방안 논의	21차 정기회의 2021.10.29	○ 심의제도 현황 및 현안 논의
	22차 정기회의 2021.11.11	○ 심의제도 개선(안) 검토 및 논의
	23차 정기회의 2021.11.25	○ 심의제도 개선방안 논의
기타	24차 정기회의 2021.12.16	○ 긴급제안 안건 논의

---

## IV. 성과 및 한계

---

### 1. 활동 성과

■ 아르고 7기 위원회의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정책 기반 마련

- 아르고 '전원위원회-정책혁신소위원회-정책혁신부'의 통합적인 정책 대응과 협력 체계 운용
- 아르고 정책혁신소위원회와 타 활동기구(현장소통소위원회, 성평등예술지원소위원회, 사업혁신TF, 코로나 대응 TF, 블랙리스트TF 활동 등) 사이의 적극적이고 상호보완적인 활동 진행
- 아르고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의 정책 소통과 협력 체계 회복 : 자율성 협약 체결, 장관 간담회 정례화 등 정책 환경의 자율성과 협력 체계 개선
- 정책혁신부와의 협력을 통해 아르고 정책 의제 개발 및 연구 용역 관리 체계 개선
- 아르고 위원들 다수의 정책혁신소위원회 참여를 통해 아르고 전체 운영의 정책 연계성 강화

■ 아르고 7기 위원회의 예술 정책 관련 현장 참여와 공론장 운영 활성화

- 현장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들로 정책혁신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
-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소통소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정책 주제별 공론화 프로그램 운영
- 매년 <아르고 현장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예술 정책 공론장 형성 및 정례화

■ 예술지원정책 현안에 대한 아르고 7기 위원회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 활동 진행

- 코로나 대응 TF와의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정책 대안 마련과 지원사업 개선 진행
- 블랙리스트 TF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아르고 관련 블랙리스트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입장과 대안 모색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공공예술 지원정책 개선 등에 대한 정책적 검토와 의견 제시

■ 사회변동에 따른 새로운 예술지원정책 의제 발굴 및 정책 과제 공론화

- 사회변동과 아르고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예술지원정책 과제 도출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 추진
- 3개 주제(예술의 현재성, 기후위기와 예술, 기술과 예술)에 대한 연구조사 활동 및 보고서 제시, 현장 협력과 공론화, 정책 대안 공론화 등 새로운 예술지원정책의 담론과 정책과제를 사회적으로 제시
- 기후위기와 예술, 기술과 예술 등의 경우 아르고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규 지원사업 및 기존 지원사업 개선 실행
- 새로운 예술지원정책 관련 현장 주제 발굴 및 네트워킹 강화

■ 아르고의 기존 과제들에 대한 아르고 7기 위원회의 정책적 접근과 개선방안 제시

- 블랙리스트 TF와의 협력 활동을 통해 아르고 23대 혁신의제의 이행과 향후 추진 방안 제시
- 블랙리스트 TF와의 협력 활동을 통해 아르고 재정운용 안정화 방안 논의 구조 마련

- 아르코 예술지원정책 주요 과제들에 대한 정책 검토 및 대안 제시 : 조직운영 혁신방안, 심의제도 개선방안, 예술뉴딜사업 개선방안, 현장소통 구조 개선방향 등

## 2. 한계

### ■ 아르코 예술지원정책 제도 개선 미흡

- 정책혁신소위원회와 정책혁신부 등 정책 단위의 협력 체계는 강화되었지만, 정책 결과물에 기초한 실질적인 아르코 지원사업 제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혁신은 부족했다고 평가됨
- 아르코 사업혁신TF와의 연계성을 통한 지속적인 협력 체계 운용과 제도 개선 미비 : 사업혁신TF의 단기적 운영의 한계, 정책혁신소위원회와 정책혁신부의 정책 체계가 사무처 각 부처(지원사업 현장 부처)와 구체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시스템 부족

### ■ 코로나 팬데믹 시기로 인한 예술 현장 교류, 협력적 거버넌스, 공론화 등의 활동 한계 존재

- 아르코 7기 위원회 활동 기간의 거의 전체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다는 점에서, 정책혁신소위원회가 초기에 의도했던 적극적인 현장 참여형 오프라인 활동이 진행되지 못함
- 온라인 활동으로 현장 참여형 협력적 거버넌스 프로그램, 네트워킹과 커뮤니티 활동, 적극적인 공론장 활동 등이 한계를 드러냄
- 정책혁신소위원회와 현장소통소위원회의 좀 더 적극적인 공동 활동이 부족했다고 평가됨

### ■ 예술지원정책 현안에 대한 아르코 7기 위원회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 활동 진행

- 코로나 대응 TF와의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정책 대안 마련과 지원사업 개선 진행
- 블랙리스트 TF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아르코 관련 블랙리스트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입장과 대안 모색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공공예술 지원정책 개선 등에 대한 정책적 검토와 의견 제시

### ■ 새로운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화 부족

-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문화예술전문기관(지원기관)들과의 좀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협력 체계 부족
- 코로나 팬데믹 관련 적극적인 지원정책 개선과 대안을 모색하였지만, 정책혁신소위원회의 정책 및 사업 제안들이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정부 차원의 제도화에 이르지 못하였음
- 코로나 팬데믹, 블랙리스트, 미투 등과 관련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체감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 구조화에 한계를 확인하였음
- 새로운 예술지원정책 관련 3개 주제(예술의 현재성, 기후위기와 예술, 기술과 예술)에 대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 프로세스가 확보되지 못하였음

---

## V. 예술지원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정책 제안

---

### 1. 예술의 현재성을 반영한 오픈트랙 지원사업 도입

#### 1) 제안 배경

##### ■ “예술 작업”의 변화

- 예술인의 예술 작업에서 명확한 ‘작품’을 결과물로 하는 만큼 ‘리서치’와 ‘활동(거버넌스, 운영단, 시위 등)’의 작업 비중 높음
- 예술인은 창작자와 기획자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음
- 단일 장르 안에서의 작업이 60%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다장르 협업의 작업이 40%로 적지 않음
- 예술 작업의 활동 방식 중에서 ‘유연한 협업’의 비중이 높으며,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지원사업 인식”의 변화

- 아르고는 ‘예술 향유’보다는 ‘예술인의 창작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함
- 예술 지원 체계의 방향은 ‘장르 중심’과 ‘시대와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별도의 트랙’을 모두 중시해야 함
- ‘선별적 방식’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30.7%, ‘보편적 방식’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7%로 보편적 방식의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음

#### 2) 제안 내용

##### ■ “(가칭)〈오픈트랙〉” 도입을 통한 패러다임 전환

- 특징 : 현행 장르 중심의 지원 트랙과는 별도로, 개방형 예술지원 트랙 신설
- 지원 내용
  - 결과가 아닌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예술 창·제작을 위한 연구개발(R%D)
  - 예술활동 방식의 다위적 흐름을 수용하는 리서치 및 작업, COVID-19 및 기후위기, 예술과 기술 등 시대적 흐름을 수용하는 작업들에 대한 지원 체계 신설
- 지원 시기 : 연 1회 공고에 의한 정기 지원 방식을 벗어나, 수시 지원 도입 (분기 또는 월 단위로 지원 접수)
- 지원 규모 : 장르 중심 예술지원 예산이 연 약 500억 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최소한 이의 약 30% 규모인 150억 원으로 하여, 예술현장에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 수 있어야 함(1개 프로젝트 평균 약 1,500만원 내외)
- 고민 지점
  - 지원 대상의 확대 : 창작자를 포함, 기획자, 큐레이터, 스태프 등 예술 창작 과정에 관여하는 주체를 넓은 범위의 예술인으로 설정
  - 선정기준 : 작업의 미래 가능성과 잠재력을 타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보다 다면화 된 평가 체계 도출

-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 선정자 대상으로 오픈 트랙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심층적인 연구 수행 필요

### 3) 참고 사례

- 영국예술위원회(ACE) : 창의적 실천의 개발(Developing your creative practice)
  - 영국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리서치 중심의 오픈트랙' 사업
  - 지원 장르 : 음악, 극장, 춤, 시각예술, 문학, 도서관, 융합, 박물관의 지원 범주에서 1개 혹은 그 이상의 범주를 다루고 있는 예술 작업
  - 지원 대상 : 창의적 실천가(creative practitioners)\_작가, 번역자, 프로듀서, 출판업자, 편집자, 감독, 디자이너, 공예, 큐레이터, 예술교육자, 커뮤니티 활동가 등(개인 또는 느슨한 콜렉티브, 단체 제외)
  - 지원 분야
    - 미래 작업을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
    - 새로운 작업 아이디어 구상
    - 새로운 협업자와의 실험
    - 멘토를 만나거나 새로운 실험을 만나기 위한 해외 리서치 여행
    - 전문적 예술가로 성장하기 위한 활동
    - 연구개발
  - 지원 시기 : 1년에 4차례
  - 지원 규모 : 2,000 ~ 10,000파운드(약 350 ~ 1,500만원)
  - 지원서 질문 : 해당 작업이 예술인으로서 생애에서 왜 지금 시기에 진행되어야 하며, 향후 미래에 어떤 기회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하는지?
  - 요구 사항 : 직접 관객을 만나거나 작품을 대중에게 알리는 public engagement 활동은 제외

## 2. 기술변화에 따른 예술지원정책 혁신

### 1) 제안 배경

- 전세계적 팬데믹 COVID-19 이후 “예술+기술 융합”시도가 크게 진전되는 계기 형성
-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디지털 뉴딜’ 포함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017년부터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사업(舊 아트앤티크 활성화 사업)> 추진
  - 2020년부터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아트체인지업> 추진
  - 2022년 신규추진사업
    -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 : 메타버스에서의 다양한 예술실험 및 발표 지원
    - 예술-데이터 매칭 사업 : 예술인(단체)대상으로 예술작품 창작과 확산에 필요한 데이터와 관련 기술지원(바우처 형태 제공)
  - 예술자료수집 및 디지털화 / 비대면 예술인력교육 프로그램 및 플랫폼 개발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경영지원센터 : 2022년부터 예술&기술 특화 거점공간인 <아트컬처랩> 조성 및 운영 예정
  - 예술을 기반(Art-based)으로 다른 장르 및 분야와의 교류·협업과 기술 융복합을 통해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예술의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하거나 사업화하고자 하는 예술인·단체 기업을 위한 ‘예술 특화 거점공간’이자 ‘종합지원 플랫폼’
- 아트앤티크 분야의 특성
  - 기술변화 속도와 학습 및 창작의 속도 간 차이로 신규진입의 어려움
  - 예술분야와 기술분야 간 소통과 협력의 어려움
  - 설치 및 에러 유지 보수 이슈 등으로 낮은 시장성, 수익창출의 어려움
  - 작동하지 않는 오픈소스로 확산의 곤란
- 기존 정부 지원정책의 한계
  - 정부 지원사업의 기조와 지향이 ‘예술의 관점’보다는 지나치게 ‘하이테크 기술 중심’ - 단기적·성과지향적 지향과 지원사업의 경직성 존재

### 2) 제안 내용

- 기술변동에 대응한 예술분야 중장기 종합계획 및 로드맵 수립
- 예술과 기술의 융합에 대한 관점의 정립

- 동시대 사회변화와 기술변화에 따라 기존 예술의 재편과 확장, 새로운 출현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예술현상’이며 이를 통해 ‘예술의 새로운 지형’이 마련되는 과정
  - 새로운 표현방식을 통해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고 예술의 경계와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는 새로운 미학의 실험장
  - 예술이 가진 공감력이 기술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설득력있는 보편성을 지니게 됨
  - 기술을 활용할 때에 예술적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와 가치, 지향을 가지고 다가갈지에 대한 근본적 물음과 성찰이 동반되어야 함
- 종합적 관점에서 중장기 발전계획 및 로드맵 수립 필요성
- 기술을 활용한 실험과 혁신, 새로운 창작자의 출현을 촉진하고 이것이 아트앤테크씬(Art & Technology Scene)의 다양성과 활력으로 이어지는 중장기 발전계획 필요
  - 예술&기술 생태계의 확장과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물적/기술적/인적 기반)
  - 창작-유통-향유-교류 활성화 방안, 타 분야와의 협업 활성화 방안
  - 예술&기술 융합 작품의 저작권, 작업윤리 등 새로이 요구되는 법제도 및 가이드 라인 등도 포함될 필요
- 예술&기술 생태계의 확장과 성장을 위한 기반구축과 지원 확대
- 예술과 기술의 접목과 융합을 위한 지원정책은 예술&기술 생태계의 확장과 성장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
  - 예술과 기술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및 협력사업 추진 필요
  - 예술대학과의 연계협업을 통해 기술 기반 교과과정의 신설 및 추가 유도
- 전략적 기획사업 추진을 통한 선도적 모델 개발
- 공모사업 방식 외에 예술기술 융합 분야의 아젠다를 선도하고 새로운 모델(Best Practice)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도하여 예술인, 기술전문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파일럿 형태의 전략적 기획사업 추진
- 예술&기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및 공간 확대
- “예술과 기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의 신설을 통해 예술&기술 생태계 활성화 유도
  - 예술과 기술 융합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용공간(인프라)의 확대(ex.아트컬처랩)
  - 예술과 기술 융합 작품 관련 ‘공간 연계 프로그램’의 추가 신설
- 기술역량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확대
- 예술인들의 기술활용 역량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의 확대·강화
  - 예술인들 사이에 기술 활용역량의 격차 존재 : 청년예술인 vs. 중장년/고령예술인, 기술친화적 장르와 기술 친화적이지 않은 장르 간 격차
  - 아트앤테크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신설 및 확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의 교육프로그램 추가 신설 또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예술경영아카데미사업(향후 추진 예정인 아트컬처랩의 (가칭) Art & Tech Academy 사업 등)과 역할분담
- 예술&기술 페스티벌 개최 및 국제교류 확대

- 기존 <예술과기술융합주간> 사업을 <Art & Tech Festival> 형태로 확대하여 예술과 기술 융합 관련 활동과 담론이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는 장(場)의 제공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사업에 아트앤테크 분야 추가하여 예술과 기술융합의 국제교류 확대
  
- 사업기간 확대 및 예산의 유연성 제고 등 사업개선
  - 사업기간의 확대 : 단년도 사업의 사업기간을 8개월 이상으로 확대(다년간 지원사업 신설)
  - 예산활용의 유연성 및 편의성 제고
  - 현장예술인 워킹그룹 논의를 통한 심사방식 및 지원서식 개편방안 모색
  
- 온라인 예술콘텐츠, 디지털 예술, Art & Tech 작품에 대한 비평 및 큐레이션 콘텐츠 지원
  - 예술과 기술 융합 작품에 대한 ‘비평 지원 트랙’의 신설을 통한 비평 활성화
  - 예술&기술 온라인 플랫폼 외에도 YouTube, Instagram 등 SNS에 큐레이션 영상 및 콘텐츠 업로드하여 디지털 예술관객의 정보 접근성 및 향유접근성 제고
  
- 예술&기술 플랫폼 고도화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예술&기술 플랫폼(www.arko.or.kr/artntech)의 “디지털 라이브러리 기능” 강화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예술가/작품소개 방식을 넘어 담론 연구자료, 공론화 기록, 교육자료, 큐레이션 콘텐츠 확대
  - 다양한 난이도의 기술 공유가 가능하도록 오픈소스, 작업 체크리스트, Technical Note 등의 수록 및 공유
  - 국내 주요 공연장 및 미술관 등에 대한 DB 구축을 통해 기술 적용 시 사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구축 검토

### 3.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예술지원정책 제도화

#### 1) 제안 배경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이슈에서 문화와 예술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안
- 정부는 한국형 뉴딜사업, 탄소중립기본법 등을 마련하면서 대전환을 위한 국가비전과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연계방안은 부재한 상황
- 한국판 뉴딜사업에서도 디지털 뉴딜사업에 문화예술분야 데이터 관련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통합적 관점에서 및 개별 뉴딜 사업에서도 문화예술 관련 의제가 부재함에 따라, 대전환을 위한 문화예술적 접근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2) 제안 내용

- 기후위기 관점에서<국가 문화정책 중장기 비전·로드맵> 수립과 <문화를 통한 기후위기 적응> 추진
- 기후위기 관점에서<국가 문화정책 중장기 비전·로드맵> 수립
  - 삶-체제의 전환을 향한 성찰과 순환의 문화사회를 담은 국가 비전 마련
  - 정의로운 전환을 향한 국가 핵심의제와 문화정책의 적극적인 연계
  -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문화예술 평가지표 체계> 수립
  - 문화예술 탄소배출 측정 툴 및 장르별, 분야별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개발
- <문화를 통한 기후위기 적응> 추진
  - 기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참여 전략의 한계를 문화적 전환을 통해 극복, 기후위기를 사회문화적 이슈로 만들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문화예술적 접근을 의미
  - 문화적 적응 프로젝트 및 문화예술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준비
  - (가칭)<Creative Climate Korea>의 운영
- 재난사회에서 예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대
- 재난사회의 차원에서 예술인에 대한 정책적 접근과 제도화 추진
- 예술 결과물, 사업성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정책 목표 전환
-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안적 시나리오 수립, 지원방식의 탄력성 확대
- 일상적 재난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 필요
- 예술 창작 활동과 단체 운영의 녹색화 지원
- 아카이브 구축 및 이용 활성화
  - 예술 현장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
  - (가칭)<Green Art Portal> 개발 및 운영 : 문화예술부문의 기후위기 적응 방법, 정책, 사례 및 정보가 종합적으로 취합·공유될 수 있는 포털 운영

- 문화·예술 분야 탄소발자국 지표와 산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컨설팅 지원
    - 작업 과정 및 문화서비스 이용 측면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지표 및 가이드라인 마련
    - 문화·예술 분야에서 작업 과정의 녹색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공공&민간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 예술현장 녹색화 지원 및 인프라 구축
    - 친환경적 재화는 관행적 재화에 비해 가격이 높게 구성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친환경적 재화구매에 따르는 추가재원 마련에 대한 어려움 해소가 필요
    - 녹색화를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재료 등의 부문에 대해 녹색화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한 기술 및 시장 지원 역시 중장기적으로 요구됨
  - 예술현장 녹색화와 지원사업 구조 연계
    - 녹색화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시 작품의 녹색화 정도 평가방법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컨설팅 역시 함께 지원
    - 비용과 재료 조달 방식의 불확실성 등 예술 현장 녹색화의 과도기적 성격을 인정하고 민관의 협력을 통해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 구조 마련
  - 예술현장 녹색화에 대한 공론화 및 예술계 내외의 네트워킹과 워크숍 지원
    -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정책 비전과 필요성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논의가 필요
    - 예술현장의 녹색화 시도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워크숍 운영 지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후위기 문화적 적응과 이니셔티브 형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문화예술적 접근기회 및 역량 향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예술 현장의 탄소중립 기반 조성
  - 예술지원기관으로서 기후위기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과 리더십 실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가칭)<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에 기후위기(탄소중립), 생태문화예술, 지속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가칭)문화예술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 3) 참고 사례

■ 스코틀랜드 Green Arts Initiative

- 개요 : 녹색 예술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170개 이상의 문화단체로 구성된 커뮤니티 네트워크 Green Arts Initiative를 운영(Creative Carbon Scotland, 무료)
- 이점 :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다양한 자원과 지원서비스(컨설팅, 우수 사례 공유, 네트워크 등) 제공
- 인증 : 별도 선발이 아닌 네트워크 회원 자격을 강조하기 위한 브랜드 및 마크 제공

■ 영국 Creative Green Certification

- 개요 : 기후위기로 전혀 다른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조직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창조적 그린 커뮤니티를 결성하고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Julie's Bicycle, 유료)
- 기준 : Creative Green Framework 기준으로 선발

- 이점 : 교육 및 학습 워크숍, 마케팅에 활용, 환경전문가 지원, Creative Green Awards 신청 참가자격 부여
  
- 영국 비영리단체 줄리의 자전거(Julie's Bicycle)
- 영국예술위원회의 파트너기관 (2006년 설립)
- '창의적인 기후행동'을 기치로 문화예술계의 생태위기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보와 연구 자료를 나누고 문화예술부문의 환경리더를 양성하는 플랫폼